



안상수 / 인천광역시장
by An, Sang-soo

약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및 동대학 대학원
- 미국 트로이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제15대 국회의원
- 재외동포신문 '2008 올해의 인물상' 수상
- 우드로윌슨 '2009 올해의 우드로윌슨상' 수상

미래로 향하는 도시의 역할과 인천광역시의 비전

Role of City for the Future and Vision of Incheon

도시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 지방화, 탈국가화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도시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미래 도시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이다.

현대 도시는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구도심 및 산업단지의 쇠퇴, 지역정체성의 부재, 복지서비스 및 주민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도시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활력', '녹색', '재생', '문화', '복지', '참여'의 여섯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활력 있는 도시 측면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 마을차원의 탄소저감 시스템 구축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 및 도시전략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창조적 문화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의 개선과 도시정체성의 확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시민이 평등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와 각종 범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강·안전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새로운 도시정책방안은 행정, 기업,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 도시정책의 실현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최근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해 주변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바로 인천이 이러한 동북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은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1개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기술의 다양한 산업구조와 세계 최고의 IT 등 국가차원의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개항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화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송도, 영종, 청라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은 '세계 일류 명품도시'라는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일류 명품도시가 실현되는 2020년에는
인천의 총체적 경제가치 상승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사업의 완료라는 기반 아래 세계 10대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천은 한국의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원년의 해로서 세계일류명품도시와 영어도시를 선언한 바 있고, 2009년에는 인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사업의 첫 번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국제비즈니스, IT, NT, BT 등 최첨단 국제도시로 건설될 것이다. 이를 위해 151층 높이의 인천타워 착공과 세계 5위의 사장교(斜張橋)로 기록될 인천대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도시경쟁력 강화이다. 신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균형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며, 도시정체성 확립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듯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경제기반 재구축, 도시이미지 회복 등 구도심 재생과 군·구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 경제교류의 거점이다. 국경 없는 경제시대에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가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과 발전을 이끈 것처럼 인천은 인천-개성-서울을 연결하는 황금의 평화삼각지대 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21세기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남북 경제교류의 거점도시로서 북한 개방과 남북 통일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공간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집약적 개발을 추진하고 강화, 옹진 등 청정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BT·NT 등 녹색 성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외 인천내항, 경인유하 주변을 중심으로 한 수변개발 및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브랜드 상승이다. 인천은 국내·외 어느 도시보다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약 24만 7,500㎡(7만5,000평) 규모의 파빌리온을 송도신도시에 조성하여 도시개발, 환경, 첨단기술, 문화예술 등 Business와 Festival 기능을 포괄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여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몇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인천은 '세계 일류 명품도시'라는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일류 명품도시가 실현되는 2020년에는 인천의 총체적 경제가치 상승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사업의 완료라는 기반 아래 세계 10대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커다란 인천의 비전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고, 국가성장 도약의 발판이 바로 인천에서 시작될 것이다. ■